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월 3일(주일) 제1326호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 나눔의 기적’
1월 4일~4월 3일 ... 공동체, 홈페이지, 유튜브 참여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1년 온누리교회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표어로 내걸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 시작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 나눔의 기적’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은 1월 4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새벽기도와 성경일독으로 극복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적 재무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의 의지이자 노력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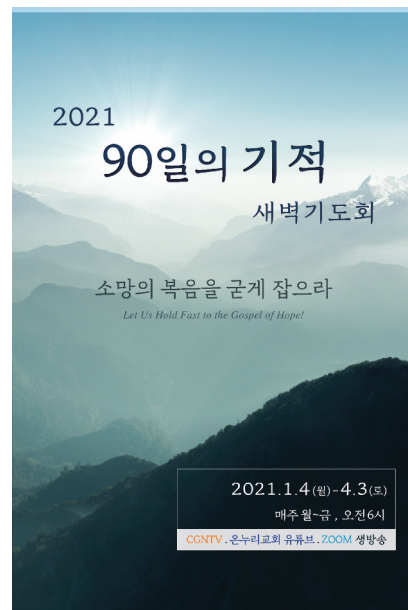
에서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일독은 추후 전달해주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표’에 따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거나, ‘90일의 기적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한 번 완독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둘 다 신청해도 무방하다. 아이스쿨 학점도 부여된다.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두 가지를 완주한 성도는 4학점, 성경일독만 완주하면 2학점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신청한 성도들에게는 공동체 단체대화방(카카

오톡)이 배정된다. 새벽기도회를 신청한 성도들은 새벽기도 시작 전후 15분 동안(오전 5시 45분~6시, 6시 45분~7시)에 단체대화방에 ‘십자가 아이콘’을 올려서 출석하면 된다. 성경일독을 신청한 성도들은 당일 분량을 다 읽거나 ‘90일의 기적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청하고 단체대화방에 ‘한 줄 소감’을 올리면 된다. ‘90일의 기적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링크는 하루 전에 단체대화방에 공유된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완주한 성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줄 예정이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 나눔의 기적’도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생명 나눔의 기적 프로젝트는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돕는 캠페인이다.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고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 이름/연락처/주소’를 온누리교회 생명 나눔의 기적 카카오톡 채널 또는 문자(010-2004-4800)로 전송하면 된다. 생명



나눔의 기적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이재훈 담임 목사 저서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평안하라 강건하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종료

지난해 14일(월)부터 올해 1월 2일(토)까지 이어진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가 종료됐다. ‘평안하라 강건하라’(단 10:19)를 주제로 이어진 세 이레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예배 실황을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줌)으로 생중계했다.

세 이레 기도회에는 한국의 명설교가 18명이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진(소망교회), 김승욱(할렐루야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김형준(동안교회), 박성민(CCC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원로),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이인호(더사랑의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정갑신(예수향남교회), 주승중(주안장로교회), 최성은(지구촌교

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 화종부(남서울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세 이레 기도회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 유튜브 라이브에는 매일 평균 5천 명이 접속했고, 유튜브 다시보기 조회수는 회당 2만회를 기록했다. Zoom(줌) 접속자는 하루 평균 200명이었다.

윤희성 순장(양천공동체)은 “매일 새벽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었다”고 간증했다. 독일에서 Zoom(줌)으로 참여한 원종호 장로는 “무엇보다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장(場)이 마련되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2021년 선교헌금작정

1월 31일, 2월 7일 실시

2021년 선교헌금작정을 1월 31일과 2월 7일 실시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일 선교헌금작정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2021년 선교헌금작정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 클릭)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 선교헌금 작정서에서 신규헌금, 봉투헌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입력하면 된다. 선교헌금 증액을 원하는 성도는 2000선교본부에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0선교본부에서 발간한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집 <마주보다>와 2020년 선교기관 보고서를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3215-3616

온누리교회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신청

2020년 온누리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메일과 전화(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즉시발급’이나 ‘우편발송 신청’란을 클릭하면 된다. 이메일 신청은 bess0417@naver.com으로 하면 되고, 전화신청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금 영수증 교회 방문 발급은 제한된다. CGNTV, NGO 더멋진세상도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온누리교회 02-3215-3265(3264, 3618, 3253)

CGNTV: 02-769-2243, www.cgntv.net
NGO 더멋진세상: 02-2271-2248

www.abetterworld.or.kr

2021년 온누리교회
조직도

2021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1월 3일(주일) 오후 5시(예정)부터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215-3313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가설과 추정으로 가득한 진화론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다윈은 1859년 그의 책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의 가설을 주장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에 의해 ‘종’이 분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한 것이다. ‘종’은 생물분류표에

서 형태에 따른 ‘계-문-강-목-과-속-종’의 분류에서 가장 모양이 비슷하며 교배했을 때 생식이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다. 생물분류표는 1735년 스웨덴의 린네가 형태로만 나눈 동물과 식물의 분류를 다윈 시대뿐 아니라 과학이 더 발달한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1866년경 발표되었으나 유전의 개념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진화론이 다 정착되고 난 1900년 이후였다. 20세기에 밝혀진 유전자나 염색체의 개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화론이 탄생한 것이다. 유전의 원리를 미리 알았다면 진화론은 수용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윈이 주장한 점진적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근거를 제공한 것이 1872년 라이엘이 제안한 지질계통표이다. 라이엘은 다윈의 〈종의 기원〉에 감명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베르너의 지질계통표를 더 세분화하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층연대측정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의 나이를 수역에서 수십억 년으로 이미 간주한 것이다. 또 지층이 일정한 속도로 퇴적된 것으로 가정하여 그 두께에 따라 연대를 정하였다. 그 지층에서 나오는 화석을 표준화석으로 지정하여 연대의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층의 두께도 다르고, 화석의 분포도 역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지질계통표의 지층분류와 표준화석의 연대는 전혀 근거가 없다.

20세기 중엽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석의 연대측정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측정오차가 크고, 그 지층을 형성하는 암석의 초기 동위원소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대측정에 적용하기는 힘들었다. 진화론자들은 지질계통표로 정해진 표준화석의 나이와 비슷한 연대측정이 나올 때까지 주변암석의 방사성동위원소 측정을 반복하든지, 정직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학계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872년 지질계통표에서 지층의 두께에 따라 설정한 표준화석의 연대가 거의 그대로 해당 지층 암석의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연대로 탈바꿈하였다. 그 지층의 연대는 표준화석의 연대를 지지하는 근거로 다시 사용되는 순환논리가 자행되고 있다.

화석이 존재하는 지층은 퇴적암이기 때문에 화석 주변의 암석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퇴적암을 구성하는 암석성분이 얼마나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가 퇴적할 때 그곳에 유입되었는지 근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을 구성하는 유기물의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것이다. 탄소는 안정한 ^{12}C 와 불안정한 ^{14}C 의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14}C 가 ^{14}N 질소 기체로 변환되어 날아가서 1/2만 남는 반감기가 5,730년이다. 이 반감기가 10번 즉 57,300년이 지나면 ^{14}C 는 약 1/1,000만 남아 측정이 힘들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연대측정법임을 알지만 화석의 탄소동위원소를 측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화 패러다임에서 화석은 수억~수백만 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 5천여 년의 탄소동위원소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석의 탄소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면 대부분에서 ^{14}C 는 남아있고 그 연대는 1만년 이하로 측정된다. 하지만 진화의 패러다임에 빠진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탄생을 연계시키려는 진화론자들의 노력은 대폭발로 생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운다. 1920년대 소련 과학자 알렉산더 오파린은 ‘화학진화론’을 내세웠다. 초기 지구에 유기물이 높은 농도로 축적된 원시수프가 가득한 시궁창이 있었고 그 속의 유기물들이 조합을 이루어 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화학자들은 작은 무기물 분자들을 원료로 아미노산이나 핵산이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1953년 밀러와 유리는 시험관에서 고압

의 전류를 가해 아미노산이 합성됨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화학진화론’에 근거한 생명 탄생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생명력을 가진 세포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과 많은 유전자를 필요로 함이 밝혀졌다. 단백질인 효소의 도움 없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의 지구와 같이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힘들게 아미노산이나 핵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산화되어 금방 분해된다.

오파린이 주장한 유기물 농도가 높은 시궁창 같은 원시수프 가설은 듣는 사람에게 생명이 막 탄생할 것 같은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궁창은 이미 많은 미생물과 식물, 곤충들이 살면서 그들이 합성한 유기물들이 축적된 곳이며 그 생명체들 없이 원시수프는 만들어질 수 없다. 더구나 유기물 단량체들이 고분자의 세포막, DNA, RNA, 단백질 같은 물질이 되어 정교한 생명체인 세포로 조성되는 것은 고물상이 폭발하여 우주왕복선이 만들어지는 기적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것이다. DNA, RNA,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량체인 핵산을 합성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멀쩡하게 조합되어 작동하는 RNA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 2:4).

“내가 만들어 준 재료 말고 너희들이 직접 만든 원자재로 만들어봐.”

묵상: 가설과 추정으로 가득한 진화론을 완벽한 과학적 증거로 인정해 오지 않았던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성적인 거룩함 지키는 방법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강연을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연애할 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등과 같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고민이 되는 문제인 듯하다. 또한 성에 대해 조금 더 허용해주는 답을 바라는 마음이 보이기도 한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

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주신 선물이다. 성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성을 결혼한 부부에게 성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으로 주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 하락하신 선물이다. 부부의 성관계는 가장 안전한 관계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히 13:4).

“간음하지 말라”(출 20:14).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청년들뿐 아니라 결혼한 부부에게도 결혼을 귀히 여길 책임이 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엡 5:29).

여기서 양육의 의미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것이다. 미혼인 청년들은 결혼 전까지 상대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돌봐주는 사랑을 하면 좋겠다.

크리스천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시 결혼 전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 온 여인에게 돌을 들었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었다. 사람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따뜻한 눈빛과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키는 것을 원하신다.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나는 연애 중인 커플들이 성관계를 했더라도 회개하고 부부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면한다. 감사하게도 많은 커플들이 함께 회개하고 결단한다. 이런 커플들은 결혼 후에도 서로를 더욱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결혼 전까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 둘째, 성적인 유혹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라. 셋째, 밀폐된 공간에서의 데이트 대신 오픈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데이트 하라. 넷

째, 유혹이 오려 할 때면 분위기를 환기하라. 다섯째, 결혼 후 배우자 생각하며 ‘배우자를 위해 어디까지 남겨 놓을까?’를 결정하라. 여섯째, 술과 음란물은 성적 유혹을 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 멀리하라. 일곱째,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여덟째,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서로를 지켜 달라. 아홉째,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아키라. 열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라.

*** 성문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사례를 모집합니다(hha0@onnuri.org).**



김숙경 소장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 속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속한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또한 악한 권력자들은 대개 죽음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때로 전쟁을 일으켜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죽음의 영은 생명을 버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이 권력욕에 빠지고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받아들이기 힘든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준비하십니다. 당시 애굽에 체류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 문화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 문화를 빼는 데는 4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와 아브람, 그 아내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악한 권세가 세상을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돌보는 이들을 통하여 새

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히 11:23).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는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내아이를 숨기는 행동은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명령에 용기 있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둑에 두었습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둑에 두는 것 또한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 놓았습니다. 갈대상자가 혹은 나일 강둑이 아이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셔서 모세의 생명을 돌볼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바로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사람은 모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에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 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6절).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돌보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딸은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집트어로 ‘아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히브리인의 자녀라는 것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느 때에 친모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인인가 이집트인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 돌봄의 축복

출애굽기 2:1~10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과정과 상황을 예상하고도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인종적 차이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히브리인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종이나 타민족에 대한 경계심 또는 배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이나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 중에 ‘라캄’(racham)이 있습니다. 라캄이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캄’에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거기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눅 15:20).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이미 그 아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플랑크나(splanxna)’인데 몸의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충격적인 마음의 움직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모두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신체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돌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은 바로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의 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보편적 감정과 선한 감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돌보시는데 사용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난 2012년 두란노서원에서 출간한 <엄마

라고 불려도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미국 여성의 스토리입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는 2007년 18세 나이로 대학 입학에 연기하고 1년 동안 우간다에 단기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고, 미래가 보장된 삶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티 데이비스는 1년이 지나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빈민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불쌍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아이 14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섯 살배기 한 아이가 케이티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라고 불려도 돼요?”

엄마 없는 그 아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케이티에게 “엄마라고 불려도 돼요?”라고 했을 때 케이티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우간다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진짜 가족으로 그들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엄마라고 불려도 돼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아무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어머니 요게벳,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누나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여성들을 통하여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한 생명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인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가 되 교회로부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아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입양 문화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제이홈’이라는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입양가정의 모임입니다. 현재 19가정이 25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그렇고 그밖에도 여러 장로님과 목회자, 성도들의 입양이 있었습니다. 혹 입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온누리교회 제이홈에 연락을 하시면 서로 격려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입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방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대를 초월한 세 이레 기도회

주상현 집사네와 김혜주 권사의 참가기



지난해 12월 14일 시작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가 1월 2일 여정을 마쳤다. 매일 오전 6시 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줌)으로 진행된 세 이레 기도회는 세대를 초월한 은혜도 있었다.

주상현 집사(대전 온누리교회)네는 5인 가족(부인 김은혜 집사, 주한음 25세, 주찬

미 23세, 주한민 15세)이다. 10대부터 50대까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세 이레 기도회에 참가했다. 주 집사네는 매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온 가족이 참가했다. 아이들이 고3 수험생일 때도 꾸준히 참가했을 정도로 새벽기도회는 주 집사네의 소중한 신앙 규칙이다.

“우리 부부는 다음세대에 줄 수 있는 것이 신앙 유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아 아쉬웠는데 세 이레 기도회를 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주 집사 부부는 잘 따라와 준 자녀들에게 무척 감사하다고 했다.

“막내가 한창 잠이 많은 중학생이라 새벽

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로 단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세 이레 기도회를 잘 따라와주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김혜주 권사(이촌공동체)는 올해 77세다. 세 이레 기도회에 Zoom(줌)으로 참가했다.

“교회에도 못 가고, 순식구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세 이레 기도회에 참가하게 돼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김 권사는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다. 성경책과 펜, 노트를 꺼내 책상에 가지런히 놓고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 설교와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등을 찾아 들었다.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지만 김 권사의 열심에는 전혀 제약이 되지 않았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요즘 같은 때 든든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12월 25일(금)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시편 3:1~8

박성민 목사(CCC 대표)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새해를 앞두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 쏟아지는 시선과 부담감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두려웠던 다윗이 3~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5~8절에서는 살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를 품게 됩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급

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까지 받았습니 다. 정체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코로나19라는 두려움으로 실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정체성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무게중심입니다”라는 고백입니

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인생에서 질서를 찾아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회복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보면 “네가 잘못해도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복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5~6절에서는 기도의 열매 평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8절을 보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 하소서”라는 말씀은 요청이 아니라 확신입니

다. 8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에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음세대를, 무너진 세대를 살려주소서.”

간절한 요청과 함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한국 교회,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 12월 26일(토)

형통한 길은 가는 사람

여호수아 1:1~9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희망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 목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한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단순한 한 마디 앞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삶의 방법을 택했는지를 살펴보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죽

음 이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기준을 환경과 상황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셨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됨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

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노예였던 자신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를 떠올리며 사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의 선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열여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웁시다. 유월절 피 값을 치루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 12월 28일(월)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

요한복음 11:23~27, 40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우리는 어제의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약속과 기대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기억과 간증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만나도록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가 마

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24절). 예수님의 그 말씀(살아날 거다)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오늘 당장 일어날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다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 미래적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켜야만 하는 맥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기억 및 간증과 거기에 담긴 약속과 기대

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킬 수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먼 미래가 아니라 1분 후,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현실 속 어둠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맥락 속에서 묵상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흐름이 우리 속에 절단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마디로 최선의 무능함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최선의 고백이 무능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어제의 기억,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한 맥락 위에서 연결해서 묵상하면 바른 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사건과 오늘의 말씀과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고, 그 맥락 위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부활과 생명을 현재형 사건으로 맛보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먼 미래 뿐 아니라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어제의 간증과 기억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오늘 말씀 속에 만나게 하는 맥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한 걸음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9일(화)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에스겔 36:24~27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B.C. 597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25년째인 해에 남유다에 검은 구름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두 번째 침략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과 1만 명의 인재들을 잡아갑니다. 에스겔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같은 신세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회복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백성들을 모으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때, 시간, 장소,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복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당 예배든 영상 예배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우상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으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맑은 물로 씻어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셋째, 새 영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상숭배는 감각이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로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의 생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을 심어 넣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곤고하거나 강박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 새 영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회복됩니다. 삶의 예배는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경제와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타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 12월 30일(수)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으면

사도행전 5:33~42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최대의 정치집단이자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

했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다 심문하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종교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선생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합니다(39절).

신앙생활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매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조차 기쁨으로 달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는 사도들이 죄 없이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음을 기뻐했습니다(41절). 자신들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부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42절). 사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책 읽어주는 목사

단순하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잔느 귀용 저 | 생명의 말씀사
| 15,000원

이 책은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체험한 여인 ‘잔느 귀용’의 대표작이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잔느 귀용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서 수녀가 되고자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뜻과 무관하게 16세에 22세 연상의 병약한 남편과 결혼하게 된다. 결혼생활 내내 시모의 학

대와 남편의 병수발로 고생하다가 그녀가 28세 되던 해 남편이 죽는다. 세상의 모든 고통에 초연해진 잔느 귀용은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 시작했고,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그녀의 깊은 영성과 신앙관은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유럽 전역의 그리스도인과 서신왕래를 하면서 영적 지도를 해 나갔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 아닐까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잔느 귀용은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한다면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권한다.

특별히 잔느 귀용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성경으로 기도하기’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성경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면서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방법은 이렇다. 먼저 성경의 본문에서 주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모든 사항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와 닿은 성경의 부분을 기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이 성경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읽어나가

면서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를 알아나가는 것이다. 이 본문은 너무 쉽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드러난다. 이 성경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마음에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는 것과 주님이 그 염려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성경말씀에 대한 음미가 끝이 난다면 마음에 와 닿은 성경 부분을 통하여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잔느 귀용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방법’,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해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잔느 귀용은 ‘단순하게 기도하기’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참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갔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지금,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주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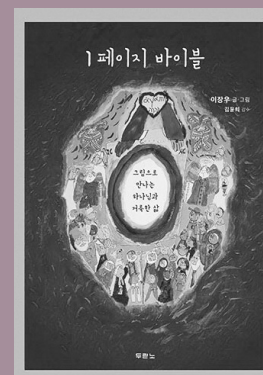
영성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잔느 귀용의 대표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통하여 신앙의 도전과 내면의 참 평안,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두란노 신간

성화 한 페이지, 설명 한 페이지



〈1페이지 바이블〉
이장우 저 | 두란노
| 17,000원

〈1페이지 바이블〉은 젊은 크리에이터 이장우 작가가 느끼고 이해한 하나님, 성경, 기독교 인물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표현한 것을 모은 책

이다. 이장우 작가가 그린 성화 한 페이지에 설명 한 페이지가 곁들여진 구성이다.

이장우 작가는 “만화 스타일로 기독교적인 그림을 그려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계기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부탁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한다.

〈1페이지 바이블〉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거룩하신 하나님’에서는 성삼위 일체,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하나님 등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등장한다.

2부 ‘거룩한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성탄절, 성만찬 등 다양한 절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3부 ‘거룩한 사람들’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죄인, 왕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몸 등 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초상을 담았다. 감수는 김윤희 총장(햇빛트리니티 대학원대학교)이 했다. 청년, 예술 분야 및 창의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책이다.

동방기독교 역사

동방기독교인들의 선교와 믿음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기독교 논쟁은 당시 큰 이슈였다. 안디옥 학파 네스토리우스 주교의 기독교 가르침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어 소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로 밀려나게 되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동방으로 밀려난 네스토리안(동방기독교)들에 의해 동방 선교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680년경 기록된 네스토리우스 교단의 역사 문헌 〈소연대기(Chronica Minora)〉에 ‘엘리아’라는 주교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과 왕을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초기 동방기독교인들은 시리아와 이란에 본부를 두고 실크로드와 초원길을 통해 아시아 동부와 북부로 진출했다. 이미 조로아스터교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고,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동방기독교인들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루터기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타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나갔다. 10세

기 이란에 100개 이상의 교구와 신학교가 존재했다. 중앙아시아에서 기독교가 발전했던 역사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카슈카르, 탕구트, 킨킨 탈라스 등지에 동방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 다른 기록에는 1000년경 바그다드의 네스토리안 총대감독은 전 세계 인구 2억7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고, 아시아에 약 250명의 감독과 20명의 대감독 그리고 대략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계수했다. 바그다드 네스토리안 총대감독의 관할지역은 인도에서 중국까지였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의 동방기독교인들은 민족과 나라는 서로 달랐지만 교류를 활발히 했다. 과거 중앙아시아 지역인 발하쉬(Balkash), 이스쿨(Issy-kol) 호수 사이 지역인 토크막(Tokmek, Takmak)과 피슈펙(Pishpek)에는 610여 개의 묘비들이 있다. 이 묘비에는 네스토리안 특유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100여 개의 비문은 시리아어와 투르크어로 기록되어 있다. 가장

이른 것은 858년과 911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3~14세기의 비석이었다. 가장 마지막은 1345년의 기록이었다. 이들 민족은 주로 타타르(Tartar)족과 그 외 중국 여자, 몽골인, 인도인, 위구르족(Uigur) 등이 있었다. 이 묘비들은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지역에 동방기독교 공동체들이 많이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동방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은 물론 몽골까지 흘러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500년 이상을 견디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페르시아의 군주 야즈데게르드의 핍박으로 하루아침에 15만 명이 순교한 키르쿠크 참상 가운데서도 동방기독교인들은 창조자에 대한 신념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굳게 믿었다. 동방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음이 분명하다.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아침노을’

아침이슬에 반사되는
영롱한 노을의 빛깔
기우는 계절을 무너지어
하늘나라를 힐끗 드러낸다

빛이 들어오는 통로도
이끌어 가는 심오한 뜻도
가려졌던 마음의 눈도
때가 차야만 열리지리

언제나 거기에 있는데
오직 잠시만 보게 해주리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눈이 열릴 때만 보이리

- 이원로 장로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 중

그럼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전도키트, 차세대 성탄절 패키지 등 풍성

그럼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역사상 유례없이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지만 온 누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만큼은 더욱 풍성했다.

W청년부는 크리스마스 전도키트 나눔 캠페인 ‘러브 액츄얼리(Love Actually)’를 실시했다. 러브 액츄얼리 캠페인은 가족, 지인, 동료에게 복음 메시지를 담은 전도키트를 선물하면서 전도하는 행사이다. W청년부 전도팀이 비대면 상황에서 성탄 선물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 생각해냈다. 전도카드, 선물(핫팩, 마스크, 소독제, 초콜릿, 양말, 말쑹카드 등)이 들어있는 전도키트는 전도대상자 33명에게 전달됐다.

일본어예배는 지난달 19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합동 크리스마스집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모두가 두근두근 크리스마스(みんなでわくわくクリスマス)’를 주제로 열린 집회는 일본어예배 어린이부서(푸치파푸스, 파푸스, 코히츠지 클럽)가 연합해서 진행했다. 집회 실황을 일본어예배 유튜브 채널과 Zoom(줌)으로 중계했다.

노리코 성도(일본어예배부)는 “온라인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예수님과 더불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12월 19일 개최한 일본어예배 합동크리스마스집회 ‘모두가 두근두근 크리스마스’.

브릿지33+공동체는 지난달 12월 20일(주일)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초청 성탄특별예배를 드렸다. 조혜련 집사는 이단 종교(남묘호렌계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간증했다. 조 집사는 “하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간증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간증했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지난 24일(목)과 25일(금)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차세대 성탄절 패키지’ (감사 메모리박스)를 나눠줬다. 차세대 성탄절 패키지에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집’을 주제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 물품 만들기(클레이, 감사

롤링페이퍼, 감사 꽃과 엽서, 말쑹 퍼즐 등이 담겨있었다.

김용선 교사(서빙고 영아2부)는 “하루빨리 자유롭게 교회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고 소망했고, 방주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은 “교회에서 뜻 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성탄축하예배는 지난 12월 25일(금)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드렸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줌)으로 진행했다. SDG 챔버, 크룩스, 버추얼 코어어(예배 교역자, 성가사, 찬양사역팀원 등), 바리톤 김주택, CH PLUS청년부 연극팀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사랑애틀 나눔 사역 종료

서울 시내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지원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애틀’ 사역이 종료됐다. 지난 12월 14일(월)부터 26일(토)까지 2주 동안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별로 진행됐다. 대학청년부 청년들은 서울 시내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애틀 나눔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던 예년과 달리 기관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최소 인원만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요셉청년부는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는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는 교남주민센터와 사직주민센터, J4U청년부는 공통종합사회

복지관, SNS청년부는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는 나섬교회, 갈렙청년부는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는 등대교회를 섬겼다. POL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복지관, 허브대학부는 신양장로교회와 나눔센터, 중앙사회복지관을 통해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정민영 형제(CH PLUS청년부)는 “사랑애틀 나눔 사역에 동참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더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o@onnuri.org

대학청년부 비전집회 ‘New Hope’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저녁 8시 온라인

온누리 대학청년부 비전집회 ‘New Hope’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일 저녁 8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에서 중계된다.

온누리 대학청년부 비전집회 ‘New Hope’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정진호 장로(더월스 인베스트먼트 회장), 김경훈 전무(구글), 이지선 교수(한동대학교), 정민영 선교사(전 위클리프 부총재), 배우 신애라 집사 등 10명의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집회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뿐 아니라 크리스천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CGNTV QT, 성경 읽기 유튜브 채널 오픈

‘생명의 삶’,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CGNTV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편의와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생명의 삶’과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유튜브 단독 채널을 오픈했다. CGNTV 유튜브 통합 채널에 업로드 되던 콘텐츠들이 이제는 각자의 단독 채널에 업로드 된다.

생명의 삶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CGNTV 생명의 삶’이다. 매일 새벽 5시 <생명의 삶> QT 영상이 업로드 된다.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콘텐츠는 ‘CGNTV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채널에서 매일 오전 7시에 업로드 된다.

/ 김영선 기자

두란노서점 온라인 북스토어 개설 및 운영

도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배송

두란노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를 개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 또는 QR 코드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두란노서점 온라인 북스토어에서는 <생명의 삶>, 하용조 목사 저서, 이재훈 목사 저서, 공동체 양육 필

독서, 온누리신문 추천 도서, 목회자 추천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EM 제품 스테디 상품 할인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두란노서점 온라인 북스토어에서 도서를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문의: 02-796-2310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021년 예수제자학교 5개 반 모집

2021년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s School: JDS)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학교다. 3월부터 9월까지 총 22주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예수제자학교에서는 서빙고, 양재 주간반(화, 목 오전 10시~오후 3시, 여성), 서빙고, 양재, 수원 저녁반(목 오후 7시, 토 오후 2시, 남녀)

총 5개 반을 모집한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은 2월 25일(목), 양재 저녁반 2월 27일(토), 서빙고, 수원 저녁반 3월 6일(토) 개강한다. 주간반 40명, 저녁반 50명씩 모집한다. 수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소속 교회 교역자 확인 필)와 추천서(교역자, 교사, 지인 등이 직접 추천서 작성) 양식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거나 온라인 폼(https://forms.gle/vsGTc5hTKV9Nbecj6)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현주 기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사와 세상을 보는 지혜를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세미나가 개강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가 주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미나가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독교 역사의 세계사적 흐름과 기독교 역사 인물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역사와 시대들의 구분’, ‘헬라와 로마와 유대’ 등을 주제로 김동주 교수(호서대 기독교학부)가 강의한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세계 역사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www.duranno.com/biblecollege)에서 시청하면 된다. 주차별 동영상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5

서빙고 주간	010-9092-6036	양재 주간	010-9320-4738
서빙고 저녁	010-8201-8468	양재 저녁	010-3773-2304
수원 저녁	010-7702-0419	본부	02-3215-3625, 3533

